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강연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군.
 - ②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었군.
 - ③ 가족을 등장시켜 친근하게 전달하였군.
 - ④ 관찰한 풍경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였군.
 - ⑤ 경험한 일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았군.

2. (물음) 심사평에서 언급한 표어가 아닌 것은?
- ① 신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사입니다
 - ② 영금영금 거북이 우리 아빠
아무리 재촉해도 소용없어요
 - ③ 누르면 날아가는 로켓이 아닙니다
밟으면 함께 터지는 폭탄입니다
 - ④ 한 명의 안전 운전자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운전자들이 그렇게 참았나 보다
 - ⑤ 빠르게 달리면 답답한 제 차만 보이고
천천히 달리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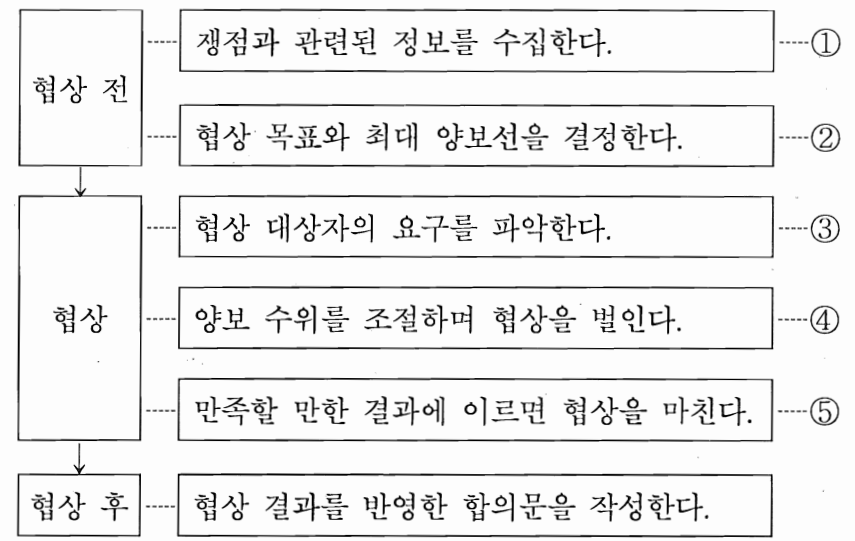
3. (물음) 인터뷰에서 교수의 마지막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

- ① 단일성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② 각 문화의 가치와 의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 ③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 ④ 새로운 문화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⑤ 각 문화 집단 간의 경제적 차이를 좁혀야 합니다.

-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학생들이 거친 협상 단계가 아닌 것은?



5. (물음) 학생들이 사용한 협상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상점 주인의 제안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의 기대 수준을 낮춘다.
 - ② 상점 주인이 선호할 만한 제안들을 준비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 ③ 상점 주인과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만한 연결점을 찾아 부각시킨다.
 - ④ 다른 상점들의 시세를 내세워 원하는 금액으로 타결되도록 유도한다.
 - ⑤ 협상 기한이 촉박함을 내세워 상점 주인이 결정을 서두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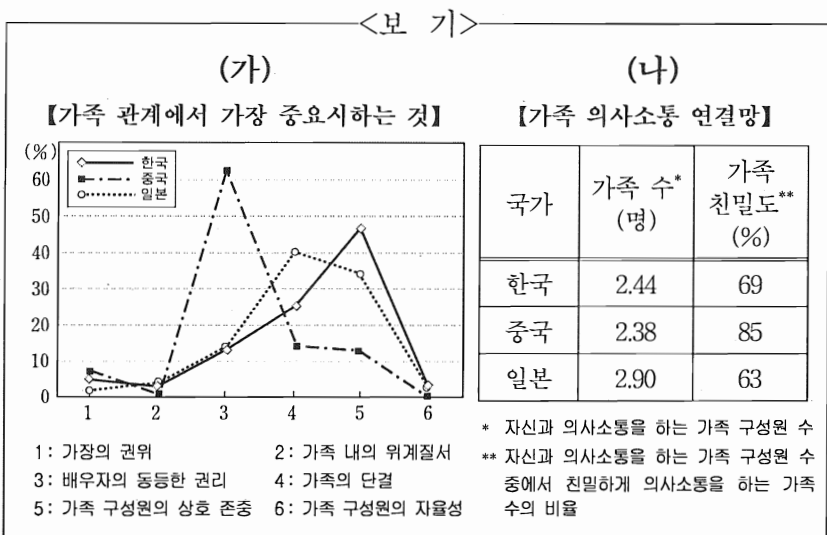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교실 안 사물에 착안하여 '현대인의 삶'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착안점	문제 상황 설정	주제 구체화
쓴 내용이 쉽게 지워짐	㉠	유익한 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밖은 보이지만 닫혀 있어서 소리는 잘 들리지 않음	㉡	진정한 인간관계를 위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표 하루에 해야 할 일정이 뿔뿔하게 적혀 있음	㉢	바쁠수록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학교의 지시 사항을 알림	㉣	현대인들은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
쓸데없는 물건이 넘쳐나고 있음	㉤	현대인들은 불필요한 것까지도 가지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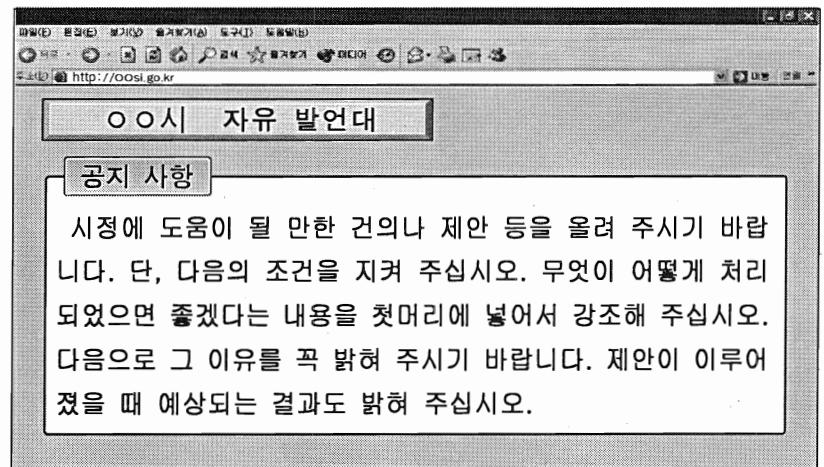
- ① ㉠: 현대인들은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그 대부분을 잊어버린다.
- ② ㉡: 현대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도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다.
- ③ ㉢: 현대인들은 여유 있는 시간을 갖기 어렵다.
- ④ ㉣: 세상의 변화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⑤ ㉤: 소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7. '한국·중국·일본의 가족 모습'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보기>의 자료에서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로 볼 때, 한국은 중국보다는 일본과 가족 가치관이 더 유사하다.
- ② (가)로 볼 때, 세 나라 모두 수직적 질서보다 수평적 관계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나)로 볼 때,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 수가 많다고 해서 가족 친밀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 ④ (가), (나)로 볼 때, 세 나라 중 일본은 가족 친밀도가 가장 낮은 반면 가족 단결은 가장 중시하고 있다.
- ⑤ (가), (나)로 볼 때,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동등한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8. 다음은 시청 홈페이지 자유 발언대의 공지 사항이다. 공지 사항에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① 우리 시에도 문화 행사가 필요합니다. △△시는 봄꽃 축제를 열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이런 문화 행사를 할 때 지역 특산품도 함께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 ② ○○ 초등학교 앞은 불법 주차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요. 차들이 없어야 등굣길이 안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통학로 옆의 불법 주차를 단속해 주세요.
- ③ 우리 시에도 체육공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시청 옆의 공터나 강변을 체육공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④ 거리에 쓰레기통이 필요합니다. 버스 정류장이 쓰레기로 넘쳐 납니다. 보기에 안 좋다고 쓰레기통은 없애고,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에게만 과태료를 물리는 시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 ⑤ 홈페이지에 익명으로도 글을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혹은 무슨 불이익이라도 있을까 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익명의 글도 허용해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9. '미세 먼지 오염의 감소 방안'에 관한 개요를 작성한 뒤, <보기>의 자료를 새로 접하였다. 자료를 참고하면서 개요를 수정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I. 서론: 환경오염의 심각성
- II. 미세 먼지 오염의 영향
 - 1. 호흡기 질환 유발
 - 2. 심장 혈관계 질병 악화
- III. 미세 먼지 발생 원인
 - 1. 산업체 소각 시설 배출 가스
 - 2. 자동차 배출 가스
 - 3. 도로 먼지
- IV. 미세 먼지 오염 감소 대책
 - 1. 소각 폐기물 배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2. 친환경 전기 자동차 생산 기술 개발
 - 3. 도로 청소차 보급 확대
- V. 결론

<보 기>

황사가 몰려온다

황사 피해 예방, 제도적 차원의 접근 필요

최근 황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황사의 주성분은 미세 먼지인데, 여기에 마그네슘, 규소, 알루미늄, 철 등의 산화물이 포함되어서 호흡기 질환 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 농작물이나 활엽수의 기공을 막아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며, 매우 정밀한 기기를 사용하는 항공기나 전자 장비에 심각한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황사에 의한 대기 오염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사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인접 국가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 ○ ○ 신문 -

- I의 내용이 논지에 비해 포괄적이므로 '미세 먼지 오염의 심각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어. ①
- II의 1과 2를 묶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고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II의 하위 항목으로 추가해야겠어. ②
- III의 하위 항목으로 '황사'를 추가해야겠어. ③
- IV의 2는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고, '미세 먼지 예·경보제 시행 확대'로 대체해야겠어. ④
- IV에 '황사 방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새 항목으로 추가해야겠어. ⑤

10. (나)가 (가)를 고쳐 쓴 글이라고 할 때, 검토한 사항이 아닌 것은?

(가)	(나)
우주인이 우주선에서 달리기를 하려면 탄성이 좋은 끈으로 몸을 고착시켜야 한다. 무중력 상태라서 몸이 공중에 뜨기 때문이다. 끈에 묶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끈이 몸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몹시 불편한데 그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주인들은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몸에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 몸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 뼈와 근육의 밀도가 급속도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우주인이 우주선에서 달리기를 하려면 탄성이 좋은 끈으로 몸을 운동 기구에 고정시켜야 한다. 우주선은 무중력 상태라서 몸이 공중에 뜨기 때문이다. 그런데 몸이 끈에 묶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끈이 몸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몹시 불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인들은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몸에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 몸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 뼈와 근육의 밀도가 급속도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 ① 호흡이 긴 문장을 알맞은 길이로 나누어 준다.
- ② 어색한 번역 투의 피동 표현을 자연스럽게 고친다.
- ③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필요한 문장 성분을 보충한다.
- ④ 접속어를 사용하여 문장 간의 연결을 긴밀하게 한다.
- ⑤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적절한 단어로 대체한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쇠고기'와 '소고기'는 모두 표준어이다.
- 옛날에는 '쇠고기'를 '쇠고기(쇼+익+고기)'라고 했다. 이 경우 '쇼+익(관형격 조사)'는 '쇠'로 축약된다.
- 옛날에는 '돼지고기'를 '도티고기(돌+익+고기)'라고 했다.

- ① '쇠고기'는 옛말의 구조를 고려할 때 소의 고기라는 뜻이군.
- ② '쇠고기'는 여러 단어가 합쳐져 한 단어로 발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쇠고기'의 옛말은 '돼지고기'의 옛말과 그 구조가 달랐다는 말이군.
- ④ '소고기'는 동물 이름에 바로 '고기'가 붙은 단어이군.
- ⑤ '닭고기'의 옛말은 '들기고기(들+익+고기)'라고 했겠군.

12.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 중 '-마는'이 들어가야 할 것은?

<보기 1>

- '-마는': 몇몇 종결어미 뒤에 붙는 보조사로서, '-만'으로 줄어들 수 있다.
- '-만은': 보조사 '-만'과 '-은'이 결합한 형태로, 어미뿐만 아니라 체언이나 조사 뒤에도 붙는다.

<보기 2>

- 여행을 가서(㉠)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리자.
- 오늘은 그냥 간다(㉡) 다음에 꼭 다시 오리라.
- 봉오리가 맺힌 가지(㉢) 꺾지 않도록 조심하렴.
- 얼마나 되겠느냐(㉣) 살림에 보태어 쓰려무나.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앓은 메기습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①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A]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 김소월, 「나의 집」 -

(나)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②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③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B]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④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

(다) ⑤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④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있다.
- ⑤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14. [A]와 [B]에 나타나 있는 시간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③ [B]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상화되어 있다.
- ④ [A]에서는 [B]와는 달리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 [B]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다.

15. (나)의 '하늘'과 (다)의 '미타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하늘'은 숭고함을, '미타찰'은 비장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 ③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 ④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 ⑤ '하늘'은 자연의 영원성을,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의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 ③ ㉢에서는 '돌'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 '풀 한 포기 없는'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의 '머뭇거리고'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담고 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18. (다)의 ㉠, ㉡와 <보기>의 밑줄 친 시어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간밤에 부던 바람 만정 도화(桃花) 다 지겠다
아이는 비를 들어 쓸려고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 쓸어 무엇 하리오

B.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 비 온다 씩이 나며
임 그려 든 병이 약 먹다 나울쏘나
저 임아 널로 든 병이니 네 고칠까 하노라

- ① ㉠와는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와 B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③ ㉡와는 달리 A의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와는 달리 B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숙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라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더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19.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위치적 외부성은 비슷한 수준의 경쟁자 사이에서 크게 작용한다.
- ②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나면 경쟁자의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 있다.
- ③ 위치적 보상은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의 차이가 클수록 증가한다.
- ④ 위치적 군비 경쟁의 비효율성을 인식하면 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⑤ 위치적 외부성으로 인한 경쟁의 결과가 경쟁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 ㉠이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사퇴가 나머지 후보들의 당선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② 프로 경기 식전 행사에서 유명 가수가 공연하면 관중이 크게 늘어 참가 선수들이 출전 수당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 ③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좋은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열기 전에 줄을 길게 서기도 한다.
- ④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이 다른 학생들보다 한두 해 늦게 입학하면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취학을 미루려고 한다.
- ⑤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모두가 남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알아듣기가 더욱 힘들게 된다.

21. ㉡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다른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ㄴ. 집단 내 경쟁자들의 이익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ㄷ.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의 효력이 강하다.
 ㄹ. 경쟁자들은 위치적 보상이 성과 향상을 위한 지출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ㄷ, ㄹ

22. ㉢와 ㉣의 '간'이 지닌 의미와 용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의미 ㄱ. 선택의 무차별성
 ㄴ. 대상들 사이의 관계
 ㄷ. 대상들 사이의 거리나 공간

용례 a. 그는 연단의 우중간에 앉아 있었다.
 b. 내외간에 숨기고 말고 할 일이 있겠습니까?
 c. 그 일에 대해서는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 | | | | |
|---------|-------|---------|-------|
| ① ㄱ - a | ㄷ - c | ② ㄱ - b | ㄷ - a |
| ③ ㄴ - b | ㄱ - c | ④ ㄴ - c | ㄱ - b |
| ⑤ ㄷ - a | ㄴ - b | | |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어인 까닭인지 모두들 구석진 좌석을 좋아하였다. 구보는 하나 남아 있는 가운데 탁자에 앉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엘만의 「발스 센티멘털」을 가장 마음 고요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선율이 채 끝나기 전에, 방약무인(傍若無人)한 소리가, 구포 씨 아니오—— 구보는 다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에 느끼며,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중학을 이삼 년 일찍 마친 사내, 어느 생명 보험 회사의 외교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평소애 결코 왕래가 없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알은체를 하려는 것은 오직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먹은 술 탓인지도 몰랐다. 구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약간 끄덕하여 보이고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사내가 또 한 번, 역시 큰 소리로, 이리 좀 안 오시료, 하고 말하였을 때 구보는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탁자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리 좀 앉으시오. 참, 최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 씨.

이 사내는, 어인 까닭인지 구보를 반드시 '구포'라고 발음하였다. 그는 맥주병을 들어 보고, 아이 쪽을 향하여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다시 구보를 보고, 그래 요새두 많이 쓰시우. 무어 별로 쓰는 것 '없습니다.'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 득의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십 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구보에게 술을 따라 권하고, 내 참 구포 씨 작품을 애독하지.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보가 아무런 감동도 갖지 않는 듯싶은 것을 눈치 채자, 사실, 내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보고, "구포 씨를 선전하지요."

그러한 말을 하고는 혼자 히히 웃었다. 구보는 의미몽롱한 웃음을 웃으며, 문득, 이 용감하고 또 무지한 사내를 고급(高給)으로 채용하여 구보 독자 권유원을 시키면, 자기도 응당 몇 십 명의, 또는 몇 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난데없는 생각을 하여 보고, 그리고 ㉔ 혼자 속으로 웃었다. 참 구보 선생, 하고 최 군이라 불린 사내도 말참견을 하여, 자기가 독견(獨鵞)의 「승방비곡(僧房悲曲)」*과 윤백남(尹白南)의 「대도전(大盜傳)」*을 걸작이라 여기고 있는 것에 구보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어느 화재 보험 회사의 권유원인지도 알 수 없는 사내는, 가장 영리하게,

“구보 선생님의 작품은 따루 치고…….”

그러한 말을 덧붙였다. 구보가 ㉕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 말하였을 때, 최 군은 또 용기를 얻어, 참 조선서원고료(原稿料)는 얼마나 됩니까. 구보는 이 사내가 원료라 발음하지 않는 것에 경의를 표하였으나 물론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사내에게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알려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다.

그래, 구보는 혹은 상대자가 모멸을 느낄지도 모를 것을 알면서도, 불쑥, 자기는 이제까지 고료라는 것을 받아 본 일이 없어, 그러한 것은 조금도 모른다 말하고, 마침 문을 들어서 는 벗을 보자 그만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어라 말할 수 있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 노트와 단장을 집어 들고, 마약 자리에 앉으려는 벗에게,

“나갑시다. 다른 데로 갑시다.”

밖에, 여름 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 「승방비곡」, 「대도전」: 1930년대에 큰 인기를 얻었던 장편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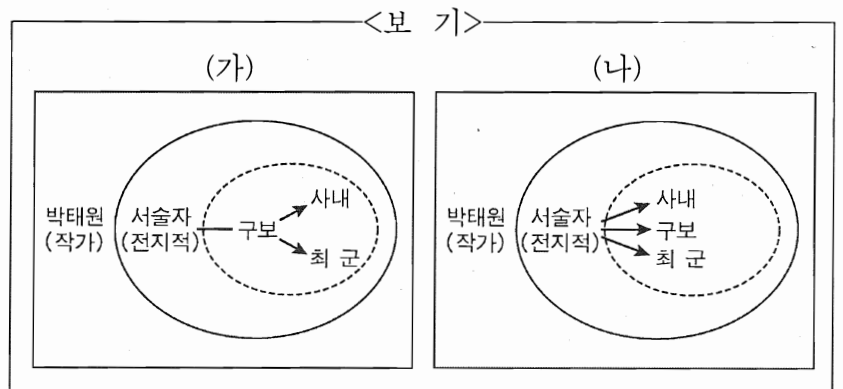
2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세태를 암시하고 있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③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 ④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활용하여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 ⑤ 쉽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24. ㉑~㉕에 나타난 ‘구보’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창피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② ㉒: 상대방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행동하고 있다.
- ④ ㉔: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고 있다.
- ⑤ ㉕: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25. 위 글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㉔를 (나)의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 ②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특의감을 맛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 ③ 그 사내는 구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특의에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
- ④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특의감을 맛보고 있었다.
- ⑤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특의감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26. 위 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는다고 가정할 때,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내: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내 후배라오. 대단하지요? 자, 대충 보았으니 이제 점심이나 먹으러 갑시다. 내가 한턱내지요. ①
 최 군: 요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작품이 화제랍니다. 저 작품 좀 보고 갑시다. 그래야 교양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②
 구보: 글썩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③
 최 군: 그래도 이런 작품 하나쯤 거실에 걸어 두면 품이 날 텐데,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④
 구보: 아무튼 요즘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려 해서 문제예요. 내가 소설을 쓰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지요. 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895년 엑스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칼을 대지 않고 인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못했다. 엑스선 촬영 장치를 개량하여 인체의 단면까지 볼 수 있게 만든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CT)는 이 방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구입비와 운영비가 엄청나게 비싸고 인체에 해로운 엑스선을 여전히 사용한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여 저렴하고 안전하게 인체의 민감한 부분이나 태아까지 검진할 수 있는 장치로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이 초음파 진단 장치이다.

초음파 진단 장치는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소리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소리는 사람의 귀로 감지할 수 있지만 초음파는 진동수가 20,000 Hz가 넘어서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이다. 인체를 진단하는 도구로 초음파를 사용하게 된 것은, 그것이 짧은 파장을 가지므로 투과성이 강하고 직진성이 탁월할 뿐 아니라 미세한 구조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 진단 장치에는 초음파를 만들어 내고 감지하기 위한 압전(壓電) 변환기라는 특수한 장치가 있다. 압전 변환기의 핵심 부품인 압전 소자는 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 압전 효과라고 한다. 초음파를 압전 소자에 가해 주면 압전 소자에 미치는 공기의 압력이 변하면서 압전 효과로 인해 고주파 교류가 발생한다. 역으로 높은 진동수의 교류 전압을 압전 소자에 걸어 주면 압전 소자가 주기적으로 신축하면서 초음파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역압전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압전 소자는 압전 변환기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파를 감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압전 변환기는 마이크와 스피커의 역할을 모두 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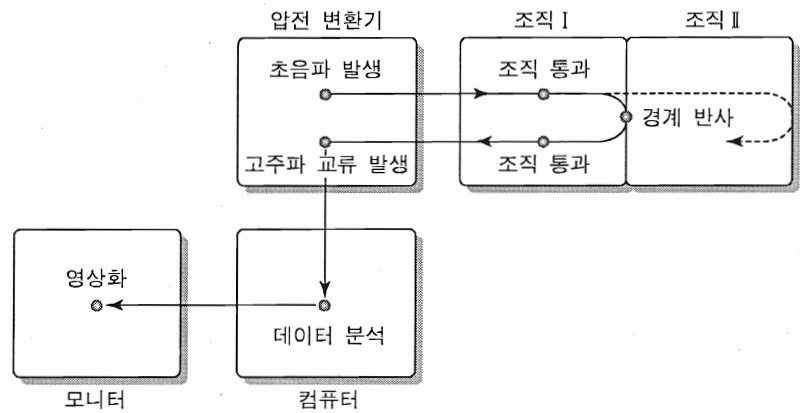
검사하고자 하는 인체 부위에 압전 변환기를 접촉시킬 때에는 그 부위에 젤리를 발라 준다. 이는 압전 변환기와 피부 사이에 공기층을 없애 반사로 인한 음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압전 변환기에서 나온 초음파는 상이한 생체 조직을 각기 다른 속력으로 통과하며, 각 조직 사이의 경계 부위를 지날 때에는 부분적으로 [A] 로 반사된다. 반사되어 압전 변환기로 돌아오는 초음파의 세기는 통과한 조직의 밀도와 두께가 클수록 약해진다. 이렇게 각 조직이나 기관에서 다층적으로 반사된 초음파는 수신 모드로 전환된 압전 변환기에서 시간차를 두고 각기 다른 세기의 교류 전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컴퓨터는 이 전기 신호들의 세기와 지체 시간을 분석하여 모니터 화면에 영상을 만들어 낸다.

돌고래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깊은 바다 속에서, 박쥐는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사물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음파를 감지해서 대상이나 장애물의 형태와 위치를 인지한다. 초음파 진단 장치는 이러한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을 모방한 생체 모방 기술의 쾌거이다.

27.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T 촬영을 하면 태아에게 해로울 수도 있겠구나.
- ② 돌고래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본다고 할 수 있겠구나.
- ③ 젤리는 신체 내부로 초음파가 잘 전달되도록 해 주겠구나.
- ④ 마이크에는 압전 소자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품이 들어 있겠구나.
- ⑤ 성능 좋은 초음파 진단 장치일수록 긴 파장의 음파를 사용하겠구나.

28. 그림은 초음파 진단 장치의 작동 과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나타나는 단계는?



- ① 초음파 발생
- ② 경계 반사
- ③ 고주파 교류 발생
- ④ 데이터 분석
- ⑤ 영상화

29. [A]에서 설명된 초음파 진단 장치의 원리로부터 유추해 낼 수 없는 음향 현상은?

- ① 물속과 공기 중에서 소리의 전파 속도는 다르다.
- ② 벽을 두껍게 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줄어든다.
- ③ 관의 굵기와 길이에 따라 관에서 나는 소리의 높낮이가 다르다.
- ④ 가까운 곳에서 생긴 메아리가 먼 곳에서 생긴 것보다 빨리 들린다.
- ⑤ 눈을 감고 있어도 자기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위치가 야외인지 실내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시 적삼을 입은 한영덕이 오른쪽 무대 아래에서 허리를 굽힌 채 염을 하고 있다. 수술 장면에서 사용했던 수술대와 환자용 마네킹이 그대로 이용된다. 허름한 옷차림의 강 노인, 관을 들고 등장. 차트를 넘긴다. — '1972년 서울'. 강 노인은 망치를 관 위에 올려놓고 소주병을 관 옆에 둔다. 조용히 엎드려 잠을 청한다. 이때 여학생 교복을 입은 한혜자, 조심스럽게 걸어 나와 한영덕을 바라보면서 오른쪽 무대 위로 올라간다.

한혜자 (종이쪽지를 보며)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난,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날마다 허리를 앓거나 날마다 폭음을 하던 술꾼이라는 기억뿐이에요. 아버지는 식구들과 말도 건네지 않고 항상 골이 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술이 깨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서 손으로 두 귀를 꼭 틀어막고 지냈었죠. 나는 자라는 동안, 양친의 일가친척 집에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어느 쪽에서도 혈육의 대접을 기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의사 노릇을 했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난 아버지가 의사인 줄도 몰랐으니까요.

한영덕 (염을 끝내고 흰 천을 씌우면서) 자, 이제 염은 끝났소. 이승에서 못다 한 일, 저승에 가서라도 꼭 이루시오. (천천히 강 노인이 엎드려 있는 관 쪽으로 걸어간다)

강 노인 (인기척에 잠을 깨며) 일은 다 끝났수?

한영덕 예.

강 노인 내가 깜박 잠이 들었나 보구만. (한영덕이 관 옆에 앉아 소주를 마신다)

한혜자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는 아무 얘기도 없이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략)

강 노인 한 씨한테는 딸이 하나 있는 모양인데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구.

한영덕 여기가 내 집이외다. 내레 갈 곳이 없시오.

강 노인 (쫓쫓 혀를 찬다)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게야. 하기사 한 씨가 우리 장의사에 처음 찾아왔을 때부터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는 줄 알았지. (사이) 근데, 거, 한 씨 염하는 솜씨를 보니까 보통 솜씨가 아니던데 전에도 시체를 다뤄본 적이 있수?

한영덕 (뭔가 얘기를 하려다 말고) 강 노인은 집 짓던 목수가 어찌 관을 짜게 되었수?

강 노인 나야 뭐, 늙어서 쉬운 일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하지만 이 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죽은 사람의 집이니까 마찬가지예요.

한영덕 기왕이면 내 것도 하나 짜 주시구려.

강 노인 (어이가 없다는 듯) 거 무슨 소리! 나보다 젊은 양반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갈려면 이 늙은이가 먼저 가야지. (사이) 정말 한 씨 염하는 솜씨가 내 맘에 꼭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거들랑 내 염을 해 주고 나서 뒤따라올 생각을 해도 늦지 않아요.

한영덕 그러면 내 관은 누가 짜 줘내까?

강 노인 (한영덕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않고 관을 두드린다)

한혜자 한영덕 씨가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고서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디다. 난 그가 살았던 시대를 새롭게 실감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한영덕 씨는 시대와 더불어 캄캄한 어둠 속에 박제될 거예요. 저 정지된 폐허 가운데 들꽃과 잡초에 뒤덮여 쓰러진 녹슨 기관차처럼 그의 매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디다. (퇴장)

술에 취한 한영덕, 관 앞에 쓰러져 잔다. 음악 소리와 함께 망치 소리 고조되면서 조명 서서히 암전된다.

- 황석영 원작, 김석만·오인두 각색, 「한씨연대기」 -

30.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혜자는 아버지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군.
- ② 한혜자는 아버지의 삶을 시대와 결부시켜 이해하고 있군.
- ③ 한영덕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군.
- ④ 한영덕은 딸에게도 자신의 인생 내력에 대해 말하지 않았군.
- ⑤ 강 노인은 한영덕의 과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군.

31. '한혜자'가 말하는 부분을 [A], '한영덕'과 '강 노인'이 대화하는 부분을 [B]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극중 시간은 [B]와 다르다.
- ② [A]와 [B]는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A]는 말하기가 중심이고, [B]는 보여주기가 중심이다.
- ④ [A]는 [B]에 대한 관객의 정서적 몰입을 제한하고 있다.
- ⑤ [A]는 갈등의 내용을, [B]는 그 갈등의 원인을 다루고 있다.

32. 위 글을 공연하려고 할 때, 연출가가 지시할 만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혜자는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해설을 하듯이 말하세요.
- ② 한영덕과 강 노인의 의상은 깔끔한 모시 적삼으로 준비해주세요.
- ③ 차트를 통해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알려주세요.
- ④ 한혜자가 말을 할 때 다른 인물들은 퇴장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 ⑤ 마지막 장면의 망치 소리가 고조될 때 조금 어두운 배경 음악을 깔아 주세요.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탁월함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탁월함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품의 탁월함은 비이성적인 것이어서 가르칠 수 없고,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

(나) 그는 좋은 성품을 얻는 것을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리라(lyra)를 켜므로써 리라를 켜는 법을 배우며 말을 탐으로써 말을 타는 법을 배운다. 어떤 기술을 연고자 할 때 처음에는 교사의 지시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반복 연습을 통하여 그 행동이 점점 더 하기 쉽게 되고 마침내 제2의 천성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 진실되고 관대하며 ㉡ 예의를 차리게 되는지 일일이 배워야 한다.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 그런 행위들을 연마하다 보면 그것들을 점점 더 쉽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다) 그는 올바른 훈련이란 강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즐기게 되고,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싶어하게 되며,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성품의 탁월함이란 사람들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그리고 한두 번 관대한 행동을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늘 관대한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성향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관대함에 관하여 성품의 탁월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생각해 보자. 갑돌이는 성품이 곧고 자신감이 충만하다. 그가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다수의 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다수의 행동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그렇게 하는 데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수줍어하고 우유부단한 병식어도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역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병식이는 일어나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고 자신과 힘든 싸움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병식이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리는 병식이가 용기 있게 행동하였다고 칭찬할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성품의 탁월함을 가진 사람은 갑돌이다. 왜냐하면 ㉢

(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존경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가까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갑돌이와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33. (가)~(마)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논제를 설정하기 위해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 ② (나)는 함축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③ (다)는 논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개념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④ (라)는 논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화를 사용하고 있다.
- ⑤ (마)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논점을 실제적인 물음과 연결 짓고 있다.

3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옳은 일을 하는 천성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 ② 그는 주체적 판단에 따라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 ③ 그는 내적인 갈등이 없이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 ④ 그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 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35.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해도 행위자의 감정이나 욕구 또는 성향이 행위의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훌륭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도덕적인 행위는 아닌 것이다.

- ① 탁월한 성품에서 비롯된 행위는 행위자의 성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에 의해 결정된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②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내야 한다. 옳은 행동을 즐겨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탁월한 성품을 갖춘 사람을 찾기란 어렵다.
- ③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얼마나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품성이나 자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 ④ 훈련의 결과 언제나 탁월한 성품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탁월한 성품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본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
- ⑤ 훈련으로 얻어지는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은 대개 이성적 성찰을 거치지 않으므로, 도덕적인 행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36. ㉔의 의미는 결여되어 있으면서 ㉕의 의미는 들어 있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빈말 ② 너스레 ③ 생트집
- ④ 어깃장 ⑤ 인사치레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 세계 해양의 평균 수심은 4,000미터 가까이 되며, 심해 저에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할 수 없어서 광합성을 하는 일차 생산자가 생존할 수 없다. 심해저에 서식하는 동물은 결국 바다의 표면에서 해저로 떨어져 내리는 유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해양 생물들이 분해되고 남은 잔존물로서 '바다의 눈(marine snow)'이라 불린다. 해양 생물이 죽게 되면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거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심해저에 도달할 때쯤이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 그런 까닭에 심해저에 많은 수의 생물이 살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생물은 항상 새로운 생존 방법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1977년 생물학 역사상 가장 흥분되는 발견 중의 하나가 있었다. 일단의 해양학자들은 잠수정 앨빈 호를 이용하여 동부 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 부근 해저 산맥에 있는 심해 열수구 지역을 탐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양 에너지가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뜻밖에 많은 생물의 군집을 발견하였는데, 모두가 처음 보고되는 새로운 생물이었다.

수천 미터 깊이의 심해저에 있는 열수구 지역은 지각 활동으로 인해 흘러나오는 뜨거운 용출수 때문에 주변의 해수에 비해 온도가 높다. 곳에 따라서는 열수구로부터 섭씨 350도가 넘는 해수가 뿜어져 나오기도 한다. 지각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고온의 해수에는 다양한 광물질이 녹아 있으며, 다량의 황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 지역에서는 검은색의 매연을 내뿜는 굴뚝과 같은 구조가 광물질의 침전으로 형성된다.

심해 열수구 지역의 우점종은 '리프티아'라고 불리는 커다란 관벌레인데, 매우 독특하게 진화된 영양 방식을 갖고 있어서 입이나 소화 기관이 없다. 그 대신에 관벌레는 '영양체(trophosome)'라고 불리는 매우 특수한 기관이 있는데, 그 안에는 ㉔ 세균이 가득 차 있다. 리프티아의 몸통은 기다란 관의 안쪽에 들어 있다. 관의 바깥쪽으로 돌출된 밝고 붉은색의 깃털구조는 아가미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산화탄소와 산소, 그리고 황화수소를 교환한다. ㉕ 관벌레의 순환계는 매우 잘 발달되어 있고, 순환계 속의 혈액은 황화수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특수한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관벌레는 황화수소를 세균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그 세균들은 화학 합성을 통해서 관벌레에게 먹이가 될 유기물을 공급하며, 관벌레는 세균이 필요로 하는 황화수소를 비롯한 무기물을 공급한다.

이와 같이 심해 열수구에서는 화학 합성 세균이 해양의 표층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일차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수천 미터 깊이의 심해에서 태양 에너지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생물이 진화되어 왔던 것이다.

37. 위 글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표제와 부제는? [1점]

- ① 생명체의 신비
- 심해저 생물의 생존 방식
- ② 심해저의 생태
- 심해저 생물종 간의 먹이 사슬
- ③ 해양 생물의 역사
- 심해 열수구 진화의 현장
- ④ 심해저의 신비와 아름다움
- 바다의 오아시스인 심해 열수구 지역
- ⑤ 생물학의 역사를 바꾼 일대 사건
- 앨빈 호 탐사의 생물학적 성과

38. ㉖과 ㉗의 관계가 나타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각류의 일종인 등각류의 일부 종들은 산호초 지역에 서식하는 어류의 표피에 붙어서 그 체액을 빨아 먹고 산다.
- ② 열대 산호초에 사는 놀래기는 곰치의 입 안에 남아 있는 찌꺼기나 곰치의 표피에 있는 기생충을 먹고 산다.
- ③ 바닷가에 사는 집게류는 소라고둥의 껍데기 안에 사는데, 성장하면서 더 큰 소라고둥의 껍데기로 옮긴다.
- ④ 바닷가에 서식하는 현화식물인 잘피는 많은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거나 어류에게 산란 장소를 제공한다.
- ⑤ 이빨 고래류는 물개와 같은 해산 포유류나 다랑어와 같은 어류를 먹이로 삼기도 한다.

39. 위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보기>의 천문학자가 ㉘와 같이 추론했다고 할 때, 이 추론의 개연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증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광합성에 충분한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기 어렵다. 유로파의 표면은 두꺼운 얼음 층으로 덮여 있으며, 그 아래에는 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90년대 후반 우주 탐사선 갈릴레오 호는 유로파의 표면 사진들을 지구로 전송하였다. 이 사진들을 조사한 천문학자들은 ㉘ 유로파의 밝은 얼음 층 밑의 물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 ① 유로파에 소행성이 충돌했다는 증거
- ② 유로파가 지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
- ③ 유로파의 대기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
- ④ 유로파가 태양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
- ⑤ 유로파의 얼음 층 밑의 물이 지구의 바다만큼 깊다는 증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진화하고 변화하는 대상으로 보고, 언어학이 역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가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방식을 어느 정도 고찰하지 않고서는 그 언어를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파울의 말로 대변된다.

(나) 이러한 경향에 반해 소쉬르는 언어가 역사적인 산물이더라도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언어는 구성 요소의 순간 상태 이외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는 가치 체계이므로, 그 자체로서의 가치 체계와 변화에 따른 가치를 구별하지 않고서는 언어를 정확하게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자는 하나의 상태 앞에 있을 뿐이며, 화자에게는 시간 속에 위치한 현상의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시기의 언어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무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



소쉬르에 따르면, 공시태는 위 그림에서 가로축에 해당한다. 공시태는 공존하는 사항 간의 관계를 말하는 동시성의 축이며, 시간의 어떠한 개입도 배제된 정적인 언어 상태이다(A 시대, B 시대). 통시태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이다(A 시대 → B 시대). 공시적, 통시적이라는 말은 현상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언어학자의 방법론이나 관점을 말하기도 한다. 공시적 연구는 언어의 한 상태를 고찰하는 것이고, 통시적 연구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을 고찰하는 것이다.

(라) 소쉬르의 개념과 방법론은 언어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소쉬르가 공시태를 정적인 상태, 즉 정태와 동일시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의가 있어 왔다. 언어는 변화하는 것이므로 시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야콥슨은 음운 변이는 변하지 않는 언어 요소들과 같은 자격으로 공시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정태와 ㉡공시태를 동의어로 보는 것은 오류라고 하였다. 마르티네도 언어가 변화하지만 기능이 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언어의 기능을 기술하려 할 때에도 그 언어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소쉬르가 말한 공시태 개념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수정한 것이다.

40. (나)의 소쉬르의 관점에서 (가)의 파울의 관점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에는 역사의 유물과 같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언어학은 과거의 언어와 관련된 사실을 밝힐 수 없다.
- ② 화자의 말은 발화 당시의 언어 상태를 반영하므로 언어 연구는 그 당시의 언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 ③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변화의 내용보다는 변화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 ④ 현재의 언어와 과거의 언어는 각각 정적인 상태이지만 전자는 후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⑤ 자연 현상과는 달리 과거의 언어와 현재의 언어는 인과 관계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41. <보기>와 같이 ‘줍쌀’이란 단어에 대해 정리한 후, (다)에 쓰인 용어들을 적용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줍쌀’의 중세 국어 어형은 ‘조쌀’인데, 이는 ‘조ㅎ’과 ‘쌀’이 결합한 것이다.
- ‘조쌀’은 ‘ㅈ’이 ‘ㅉ’으로, ‘ㄷ’이 ‘ㄸ’로 변화하여 오늘날의 ‘줍쌀’이 되었다.
- ‘줍쌀’의 ‘ㅈ’은 ‘ㅉ’의 흔적이다.

- 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줍쌀’은 현대 국어에서 공시태이겠네.
- ② 현대 국어를 공시적으로 연구할 때는 ‘줍쌀’의 ‘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겠네.
- ③ ‘ㅉ’이 어떻게 ‘ㅈ’이 되었는지를 고찰하면 그것은 통시적 연구이겠네.
- ④ ‘ㅉ’로 변하기 이전의 ‘ㅉ’은 중세 국어에서 통시태이겠네.
- ⑤ 중세 국어에서 ‘조쌀’을 ‘조ㅎ+쌀’로 분석하면 그것은 공시적 연구이겠네.

42. (라)를 바탕으로 ㉠과 ㉡의 개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날아가는 화살이 한 순간에 정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순간에도 이동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자가 ㉠이고 후자가 ㉡이다.
- ②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성장이 멈추는데, 이때 성장하는 과정이 ㉠이고 성장이 멈춘 상태가 ㉡이다.
- ③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퍼즐판의 상태는 다른데, 전자가 ㉠이고 후자가 ㉡이다.
- ④ 음표는 악보에서는 기호이지만 연주될 때는 소리인데, 악보의 음표가 ㉠이고 연주된 소리가 ㉡이다.
- ⑤ 정지했을 때 보는 산과 이동 중일 때 보는 산의 모습이 다른데, 전자가 ㉠이고 후자가 ㉡이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함경도 곡산 땅에 한 사람이 있으되, 성은 김(金)이요 명은 덕령(德齡)이라. 힘은 능히 삼천 근을 들고 신장은 구 척이요, 검술과 육도삼략이 옛날 황석공의 도술을 당하는지라. 아깝도다. 이때는 부친의 초토(草土)* 중에 있고, 모부인을 섬겨 하루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들으니 왜적이 백 리 안에 온다 하거늘 모부인에게 여쭙오되,

“국운이 불행하여 왜적이 산과 들에 가득 찼사오니, 소자가 비록 초토에 있사오나 지금은 국사가 망극하오니 신민의 도리로 어찌 편안하오리이까? 나아가 도적을 물리치고 즉시 돌아오리이다.”

부인이 책망하여 왈,

“너는 어찌 무지한 말로 어미를 놀라게 하느냐? 공자(公子)는 구 년 거상(居喪)이요, 군자(君子)는 육 년 거상이요, 대부(大夫)는 삼 년 거상이다. 네 어찌 무슨 지략으로 사정에 어두운 말을 하느냐? 만일 내 말을 거역하면 모자지의(母子之義)를 끊으리라.”

덕령이 다시 말을 못하고 마음을 억누르고 있더니, 수일 후 들으니 도적이 머지않아 들어온다 하거늘, 마음이 송구하여 슬하를 떠나 가동청정의 집에 자취도 없이 들어가 외쳐 왈,

“나는 조선 장수 김덕령이라. 왜적의 씨를 없이하려니와 천운이 불행하여 내 몸이 상중에 있기로 너희를 이제까지 살렸도다. 무지한 왜적은 천위를 모르고 외람되이 조선을 침범하였으니 목숨을 아끼거든 바삐 살아 가라. 너의 명이 내 수중에 달렸으니 빨리 돌아가라. 만일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일 오시(午時)에 올 것이니, 그때를 기다려 재주를 구경하되 백지를 오려 너희 군졸 머리 위에 날날이 붙이고 기다리라.”

하고, 마침 간데없거늘, 가동청정이 대로하여 ㉠ 수문장을 배어 장대에 달고 왈,

“문을 어찌 지켜 요망한 놈이 임의로 출입하는가.”

하고, 군중에 전령하여,

“백지를 오려 머리 위에 날날이 붙여라. 내일 오시에 요망한 놈이 반드시 올 것이니, 동정을 살피되 일시에 함께 총과 활을 쏘아라.”

하고, 이튿날 오시가 되도록 종적이 없더니, 오시 후에 북쪽으로부터 일점 흑운이 일어나며 광풍이 대작하고 시석(矢石)*이 날리며 큰 나무가 부러지며 천지가 뒤넘는 듯하더니 공중에서 한 소년이 상복을 입은 채 포선(布扇)*을 들고 오른손으로 억만 군중 백화 받이 된 백지를 거두어 쥐고 천둥같이 호령 왈,

“너희는 내 재주를 보라. 내 몸이 상중이 아니면 너희 장졸의 머리를 이 종이같이 경각에 거두고자 하나니, 너희가 목숨을 아끼거든 빨리 퇴병하라. 만일 나의 말을 업신여기면 내 포선으로 너희를 씨도 없이하리라.”

하고 간데없거늘, 가동청정이 간담이 서늘하여 차탄 왈,

“내 팔 년 동안 도술을 배워 조선에 나왔으되 저러한 재주

는 처음이라. 천신 같도다.”

하고, 진을 풀어 조섭의 진과 합하고자 하더라.

-작자 미상, 「입진록」-

*초토: 거적자리와 흙 베개라는 뜻으로, 상중에 있음을 이르는 말.

*시석: 전쟁에 쓰던 화살과 돌.

*포선: 상주가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부채.

43.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김덕령은 종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이한 능력을 드러냈다.
- ② 어머니는 김덕령에게 신민의 도리보다 아들의 도리를 요구했다.
- ③ 상복을 입고 공중에서 나타난 소년은 김덕령이 둔갑한 인물이다.
- ④ 김덕령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모두 중시했다.
- ⑤ 가동청정은 김덕령의 능력을 두려워하여 군사들의 머리에 백지를 붙이게 했다.

44. 위 글과 <보기>는 같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 글과 <보기>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남원부 사람으로 전에 참봉을 지냈던 변사정이 의병을 모집하여 영남으로 가려고 할 때, 최척은 활쏘기와 말 타기를 잘했기 때문에 의병에 뽑혀서 동행하게 되었다. 최척은 진중에 있으면서 옥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몸이 아프게 되었다.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한 날이 되어 소장(訴狀)을 올려 휴가를 청하자, 의병장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이야 어느 때인데 감히 혼사에 대해 말하느냐? 임금께서도 난리를 당하여 피난을 가서 풀숲을 방황하고 계시니, 이러한 때 신하 된 자는 마땅히 창을 베고 잘 겨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의병장은 이렇게 꾸짖으며 끝내 최척의 귀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옥영도 최척이 돌아오지 않자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날을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

- ① 위 글은 <보기>에 비해 통쾌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② 위 글은 <보기>에 비해 주인공이 능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③ <보기>는 위 글에 비해 사실성이 두드러진다.
- ④ <보기>는 위 글에 비해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진다.
- ⑤ <보기>는 위 글에 비해 개인의 애환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45. '김덕령'에 대해 정리한 다음의 역사 기록을 참조하여,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출생 배경	○ 전라도 광주 사람이다. ○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인물 특성	○ 기개가 있고 자부심이 있었다. ○ 다른 사람에 비해 용맹과 힘이 뛰어났다.
주요 행적	○ 형 김덕홍이 의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하자 세상일에 뜻을 두지 않았다. ○ 모친상을 치른 후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 매부 김응희가 여러 번 왜적을 토벌하라고 권유했으나 주저하였다. ○ 최담령 등 수십 명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 왜장 가등청정이 경계를 강화할 정도로 뛰어난 의병 활동을 하였다.

- ① 출생지를 달리 설정한 것은 독자층을 널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인물 특성을 과장한 것은 김덕령의 영웅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③ 주요 행적을 단순화한 것은 핵심적인 사건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 ④ 상중에 출전한 것으로 바꾼 것은 김덕령의 충성심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김덕령이 가등청정을 위협한 것으로 설정한 것은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의도이겠군.

46. 문맥으로 보아 ㉠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1점]

- ① 일벌백계(一罰百戒) ② 유구무언(有口無言)
- ③ 청천벽력(靑天霹靂) ④ 토사구팽(兔死狗烹)
- ⑤ 비분강개(悲憤慷慨)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예술은 인간 감정의 구현체로 간주되곤 한다. 그런데 예술과 감정의 연관은 예술이 지닌 부정적 측면을 ㉠ 드러내는 데 쓰이기도 했다. 즉, 예술은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비합리적 활동, 심지어는 광기 어린 활동으로 ㉡ 여겨지곤 했다. 그렇지만 예술과 감정의 연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입장도 유구한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톨스토이와 콜링우드를 들 수 있다.

톨스토이의 견해에 ㉢ 따르면, 생각이 타인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듯이 감정도 그러하다. 이때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 예술이다. 예술가는 자신이 표현하고픈 감정을

을 떠올린 후, 작품을 통해 타인도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 그런데 이때 ㉠ 전달되는 감정은 질이 좋아야 하며, 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연대감이나 형제애가 그러한 감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톨스토이는 노동요나 민담 등을 높이 평가하였고, 교태 어린 리스트의 음악이나 허무적인 보들레르의 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좋은 감정이 잘 표현된 한 편의 예술이 전 사회, 나아가 전 세계를 감동시키며 세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콜링우드는 톨스토이와 생각이 달랐다. 콜링우드는 연대감이나 형제애를 사회에 전달하는 예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체주의적 대규모 집회에서 드러나듯 예술적 효과를 통한 연대감의 전달은 때론 비합리적 선동을 강화하는 결과를 ㉡ 낳는다. 톨스토이 식으로 예술과 감정을 연관시키는 것은 예술에 대한 앞서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콜링우드는 감정의 전달이라는 외적 측면보다는 감정의 정리라는 내적 측면에 관심을 ㉢ 둔다.

콜링우드에 따르면, 언어가 한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수단인듯이 예술은 한 개인의 감정을 정리하는 수단이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감정도 그러하다. 일상사에서 벌컥 화를 내거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보면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낸 듯하여 쑥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분노나 슬픔은 공책을 펴 놓고 논리적으로 곰곰이 추론한다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은 염주 알처럼 진행되지만, 감정은 불쑥 솟구쳐 오르거나 안개처럼 스멀스멀 밀려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감정은 그와 생김새가 유사한 예술을 통해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토벤이 인생의 파란만장한 곡절을 「운명」 교향악을 통해 때론 용솟음치며 때론 진저리치며 굽이굽이 정리했듯이, 우리는 자기 나름의 적절한 예술적 방식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을 통해 우리의 감정이 정리되었으면 굳이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예술은 그 소임을 충분히 완성한 것이다.

톨스토이와 콜링우드 양자의 입장은 차이가 나지만, 양자 모두 예술과 감정의 긍정적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예술의 가치를 옹호하였으며, 이들의 이론은 특히 질풍처럼 몰아치고 노동처럼 격동했던 낭만주의 예술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47. 영국의 시인 키츠가 <보기>와 같이 말한 이유를 콜링우드의 견해를 바탕으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보 기>
불면의 밤을 보내며 완성한 시를 아침 해를 바라보며 불태워 버려도 좋다.

- ① 창작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② 창작 작업에 근본적인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 ③ 혼란한 감정을 시를 통해 정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④ 아침 해를 바라보며 불같은 열정을 새롭게 느꼈기 때문이다.
- ⑤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48. <보기>의 관점에서 위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음악의 아름다움이란 음악의 형식을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다.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내용도 필요치 않고, 오직 독립적인 음들 및 그것들의 형식적 연관으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곧 음악적 아름다움이다. 매력 넘치는 소리들의 연관, 그 연관의 조화와 대립, 이탈과 도달, 상승과 소멸 등이야말로 우리 앞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나타나 만족을 주는 것들이다.

- ① 예술의 본질은 감정보다는 형식이다. 우리에게 미적 즐거움을 주는 원천은 예술 고유의 조형적 아름다움이지 않은가.
- ② 예술이 감정을 전달하려면 감정의 전달 수단인 형식도 중요하다. 아름다운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정치적 선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
- ③ 예술은 감정이 아닌 절대적 이념의 표현이다. 예술과 감정의 연관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예술이 지닌 숭고한 정신적 이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 ④ 용솟음치는 감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감정이 정형화된 형식을 넘어 예술을 통해 자유로이 분출됨으로써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 ⑤ 예술의 핵심은 감정이라기보다는 파란만장한 인간 삶의 형식을 묘사하는 일이다. 그러한 묘사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삶을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49. ㉠의 관점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은?

- ①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그 순수를 겨냥하지만,/매양 쏘는 것은/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②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③ 눈물 아롱아롱/피리 불고 가신 입의 밟으신 길은/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삼만 리./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옴신 입의/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삼만 리.
- ④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목마는 하늘에 있고/방울 소리는 껏전에 철렁거리는데
- 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길 하며/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50. ㉠~㉣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부각(浮刻)시키는 ② ㉡: 치부(置簿)되곤
- ③ ㉢: 의거(依據)하면 ④ ㉣: 초래(招來)한다
- ⑤ ㉤: 전환(轉換)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